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반려견 관리 5개 규정 어기면 범칙금	버밍엄
문화·관광	3	관광아이콘 '구엘공원', 지역주민 공간으로 새 단장	바르셀로나
산업·경제	5	'고용창출 잠재력 中企 투자' 주식형 펀드 조성	뉴사우스웨일즈
사회·복지	7	사회참여 활성화 등 담은 노인종합정책 마련	바르셀로나
환경·안전	9	유해배기가스 배출 노후차량에 '오염부담금'	런던
	11	파리녹색재단 만들고 운영할 중소기업 공모	파리
정보·기타	13	빅데이터시대 데이터 수집·활용능력 강화	파리

반려견 관리 5개 규정 어기면 범칙금

배설물 방치, 학교·어린이구역 특별한 사유 없이 출입 포함

영국 버밍엄市 / 환경·안전

- 영국 버밍엄市는 작년 한 해에만 반려견 관련 민원이 3,115건이나 접수되는 등 반려견 문제가 심화되자, 올해 시민협의 과정을 거쳐 5개 반려견 관리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어기는 반려견의 책임자에게 1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10월 20일부터 시행

- 배경
 - 유기견, 배설물 방치 등 반려견 관련 민원이 2016년에만 3,115건 접수
 - 528건의 경고편지와 27건의 범칙금 고지서를 발송
 - 시민협의를 거쳐 반려견 관리규정 강화를 승인
 - 시정부는 온라인 공개 시민협의 플랫폼 ‘비 heard’(Be Heard)에서 지난 6월 26일~8월 7일 협의회를 진행(※ 402호 참조)
 - 2017년 9월 13일 강화된 반려견 관리규정을 승인

- 주요 내용
 - 목적: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려견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
 - 특히 안전과 도시환경 차원의 문제 예방에 중점
 - 다음 5가지 주요 규정을 어긴 반려견의 주인이나 책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
 - 1) 공공장소에 반려견의 배설물을 방치하지 말 것
 - 2) 도로, 인도, 도로변에서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할 것
 - 3) 특별한 사유 없이 어린이 전용구역임을 표시한 지역이나 교육법에서 정한 학교구역 안으로 반려견을 들이지 말 것
 - 4) 공공장소에서 4마리 이상의 반려견과 동행하지 말 것
 - 5) 반려견 담당 공무원이 규정에 따라 반려견의 행동수정 등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 반려견을 통제할 것
 - 10월 20일부터 범칙금이 80파운드(12만 원)에서 100파운드(15만 원)로 증가
 - 범칙금 고지서나 경고편지를 무시한 견주는 기소·고발 조치

- 기타

- 신고전화를 운영해 다음과 같은 반려견 문제에 즉각 대응
 - 반려견 분실, 유기견, 길 잃은 개
 - 반려견 복지
 - 책임질 견주가 없거나 위협적인 개
 - 반려견 배설물 방치
- 시간대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담당부서에 신고
 - 주중 업무시간에는 반려견 담당부서로 신고
 - 주말이나 업무 외 시간에는 별도의 신고전화를 운영
 - 개에게 물리는 등의 위급상황에는 응급전화 999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
 - 위급상황은 아니지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101번으로 전화

범칙금이 부과되는 위반사항

- 🐾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배설물을 처리할 것
- 🐾 반려견과 길을 걸을 때는 목줄을 할 것
- 🐾 특별한 사유 없이 어린이 전용구역이나 학교구역에 반려견을 들이지 말 것
- 🐾 공공장소에서 4마리 이상의 반려견과 동행하지 말 것
- 🐾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반려견을 통제할 것



[그림 1] 5가지 주요 반려견 관리규정

https://www.birmingham.gov.uk/news/article/177/new_dog_control_measures_introduce_tougher_fines

https://www.birmingham.gov.uk/info/20140/environmental_concerns_and_requests/161/report_a_lost_dog_stray_dog_dangerous_dogs_or_a_dog_fouling_issue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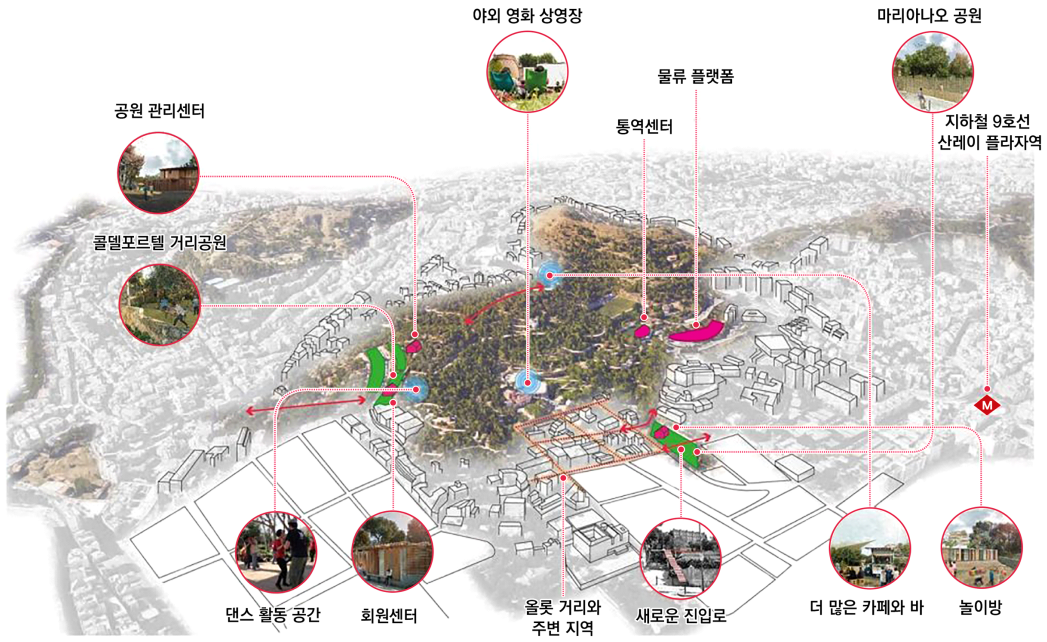
문화·관광

관광아이콘 ‘구엘공원’, 지역주민 공간으로 새 단장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 문화·관광

- 스페인 바르셀로나市는 대표적인 관광아이콘 ‘구엘공원’(Parc Güell)이 관광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주민 중심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객 수 조절,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춘 개장시간 조정, 시설정비 사업 등을 지속 수행하는 ‘2018~2022 구엘공원 관리계획’을 수립
- 배경
 - 스페인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이지만, 2013년부터 관광객 수를 조절
 - 스페인의 유명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Antonio Gaudi)의 대표작 중 하나
 - 2013년부터 관광객 수를 조절하기 위해 주요 구역에서 입장료를 징수
 - 추정 관광객 수가 2012년 900만 명에서 2016년 290만 명으로 감소
 - 하지만 무료입장 구역이나 인근 지역으로 많은 사람이 유입되는 문제도 발생
 - 시정부는 관광명소 이미지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공원 이용을 장려할 계획
 - 구엘공원 건설 100주년인 2022년을 맞이해 관광의 아이콘에서 지역주민 중심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
 - ‘2018~2022 구엘공원 관리계획’에서 총 179개의 변경사항과 절차를 명시
 - 총 2,490만 유로(327억 5천만 원)를 투자해 변경사항을 적용할 계획
- 주요 내용
 - 사라진 지역주민의 활동을 회복
 - 계획수립 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원 관광객이 늘어날수록 지역주민의 활동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공원 개장시간 중 단 1%만이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에 쓰임
 -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춰 공원 개장시간을 조정하고 홈페이지를 개선
 - 공원의 개선과 발전에서 지역주민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

- 디지털 관독시스템 도입으로 입장 대기시간을 단축
 - 유료구역에 입장하는 관광객의 대기시간을 축소해 혼잡도를 개선
 - 시민을 대상으로 주요 문화시설 할인과 무료입장을 제공하는 ‘가우디르 메스’(Gaudir Més) 회원의 입장도 신속하게 처리
- 공원 홍보를 축소하거나 중단할 예정



[그림 1] 구엘공원의 주요 정비대상

http://eldigital.barcelona.cat/es/el-park-de-los-vecinos-y-las-vecinas_574310.html

http://eldigital.barcelona.cat/en/improvements-in-and-around-the-park-guell_540671.html

진광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산업·경제

‘고용창출 잠재력 中企 투자’ 주식형 펀드 조성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 산업·경제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고용창출 잠재력이 높은 고성장 중소기업에 투자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용을 확보하고 수익금은 다시 새로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고용전략을 마련하고, ‘뉴사우스웨일즈 주식형 펀드’(GO NSW Equity Fund)를 조성해 실행

- 배경
 -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미래 고용창출에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큼을 인식
 - 전체 고용의 47%는 고용인원 2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는 고용인원 20인 이상 200인 미만의 중기업이 차지할 정도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큼
 - 앞으로 20년 동안 1백만 개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는 주정부의 ‘미래 고용전략’(Jobs for the Future)에서 중소기업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포함
 - 고용창출 잠재력이 큰 고성장 중소기업을 선별해 지원할 계획
 - 설립 5년 이내에 폐업하는 중소기업이 75%에 달할 정도로 중소기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부족한 실정
 - 매년 20% 이상의 성장을 이루는 고성장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6%뿐이지만, 이들은 지난 6년간 100%의 신규고용을 창출
 - 주정부는 고성장 중소기업 지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용창출의 열쇠라고 판단

- 주요 내용
 - 총 1억 5천만 호주달러(1,260억 원)의 펀드를 조성
 - 연금 운용회사 ‘퍼스트 스테이트 슈퍼’(First State Super)가 1억 호주달러(840억 원), 주정부가 5천만 호주달러(420억 원)를 분담
 - 민간 주식투자기업 ‘록 파트너’(ROC Partners)가 투자 개시, 투자 기업과 조건의 심사, 실제 투자 실행 등을 지원

- 투자대상 중소기업의 조건
 - 뉴사우스웨일즈주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함
 - 기업 자산가치가 2천만~5천만 호주달러(168억~420억 원) 사이일 것
 - 실질적인 성장단계(Significant Expansionary Phase)에 진입한 기업으로, 고용창출에 관련된 유의미한 성과가 있어야 함

- 기대효과
 - 중소기업
 - 신규 시장창출, 신제품 출시, 전문성 제고 등 전반적인 사업능력 향상
 - 안정적인 투자에 기초해 다른 유수의 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제휴 프로젝트 등을 추진 가능

 - 주정부
 - 기존의 기업용자나 보조금 형태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지원 모델 제시
 - 펀드 투자로 발생한 이익금을 더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재사용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1차 목표로 2,500개의 신규고용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익금 재사용으로 2025년까지 추가로 2,400개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

<https://www.nsw.gov.au/news-and-events/news/go-nsw-equity-fund-to-invest-in-high-growth-companies/>

https://www.jobsforNSW.com.au/__data/assets/pdf_file/0009/124101/Go-NSW-Equity-Fund-fact-sheet.pdf

<https://www.parliament.nsw.gov.au/researchpapers/Documents/small-business-in-nsw-statistical-snapshot-and-r/Small%20Business%20in%20NSW%204.pdf>

정용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

사회·복지

사회참여 활성화 등 담은 노인종합정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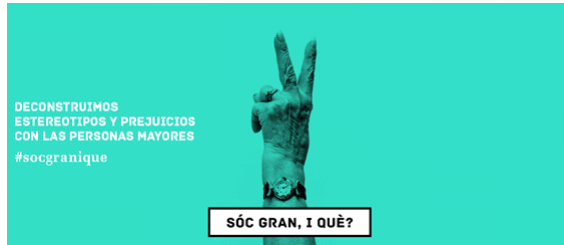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 사회·복지

- 인구 고령화가 진행 중인 스페인 바르셀로나市는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한 노인종합정책을 지난 10월 17일 시의회에 제출하고, 앱을 활용한 노인의 사회적 관계 확대 프로그램과 노인을 향한 대중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 등 기존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
- 배경
 - 바르셀로나시 총인구 160만 명 중 65세 이상이 30만 명, 80세 이상은 10만 명
 - 노인도 여성이나 성소수자처럼 차별받기 쉽고 많은 관심이 필요한 취약집단
 - 시정부는 지난 10월 17일 노인층에 필요한 35개의 정책 방안을 담은 노인종합정책을 시의회 사회권리위원회에 제출하고, 470만 유로(61억 6천만 원)의 예산 책정
- 주요 내용
 - 시범사업 중이던 노인관련 프로그램인 ‘빈클레스바르셀로나’(VinclesBCN)와 ‘내 나이가 어때서?’(Soc gran, i que?)를 도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
 - 빈클레스바르셀로나
 - 목표: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의 사회관계를 강화하고 노인 복지를 개선
 - 커뮤니케이션 앱을 활용해 가족과 친구는 물론 이 프로그램에서 형성된 커뮤니티 구성원과 소통
 - 사는 곳이 같거나 관심사가 일치하는 노인이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돕고, 커뮤니티마다 안내자를 두어 참여와 활동을 장려



[그림 1] 빈클레스바르셀로나 홍보 이미지

- 내 나이가 어때서?
 - 목표: 노인을 향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사회의 노인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노인 차별을 방지하고 노인의 권리를 증진
 - 도시 노인의 생활방식은 다양할 수 있음을 인식
 - 더 차별받기 쉽고 눈에 띄지 않는 여성 노인, 이주자 노인, 성소수자 노인, 부양가족이 많은 노인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 차별 상황에서 노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주요 프로그램
 - 노인과 가족이 함께 차별과 다양성을 주제로 연극을 창작하고 발표하는 포럼
 - 다큐멘터리 등 시청각 자료를 널리 보급
 -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설문지와 가이드 등 자료 제공
 - 공공기관, 사회단체, 관련 시설 등의 참여와 협력 유도



[그림 2] '내 나이가 어때서?' 캠페인 포스터

- 적십자와 연계해 이동이 불편한 노인을 돕는 서비스 제공 예정
 - 11월에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노인의 모임을 만들고, 이들이 가정 밖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 이동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새로운 시범사업 '노인 친화 상점'을 일부 지역에 선보일 계획
- 디지털 세대격차를 없애기 위한 '나는 블로거다'(soy blogger) 프로그램으로 노인의 SNS 사용을 도울 예정

http://eldigital.barcelona.cat/es/plan-para-promover-el-envejecimiento-activo-y-romper-estereotipos_561985.html

<http://ajuntament.barcelona.cat/vinclesbcn/es/vincles-bcn>

<http://ajuntament.barcelona.cat/socgranique/es/objetivos>

진광선 통신원, sunnyce@hanmail.net

환경·안전

유해배기가스 배출 노후차량에 ‘오염부담금’

영국 런던市 / 환경·안전

- 영국 런던市는 그동안 도입을 적극 검토했던 유해배기가스 배출 노후차량에 오염부담금을 부과하는 ‘T-Charge’ 제도를 지난 10월 23일부터 시행하고, 런던 중심부에 진입하는 대상 차량에 하루 10파운드(1만 4천원)의 부담금을 징수

- 배경

- 최근 런던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

 1조 2,800억 원 대기질 개선에 쓰일 예산	 4,400억 원 친환경 버스 도입 예산
 9,000명 이상 1년 동안 대기오염으로 조기사망하는 시민 (2017년 9월 현재)	 438개 학교 대기오염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 있는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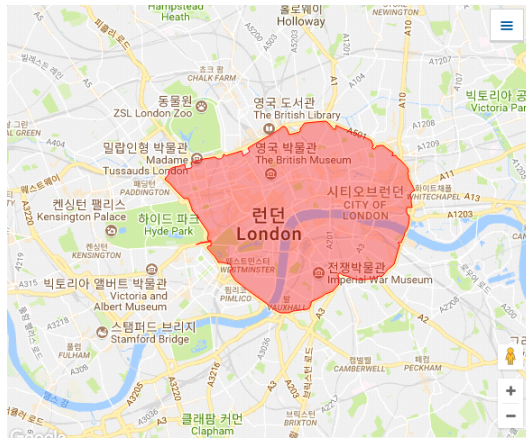
[그림 1] 런던 대기오염 현황

- 시민의견 수렴 플랫폼 ‘토크 런던’(Talk London)에서 대기오염 문제를 협의
(※ 413호 참조)
 - 2016년 한 해 동안 1만 5천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런던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공유
 - 많은 시민이 유해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노후차량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T-Charge’(Toxicity Charge) 정책을 지지(※ 416호 참조)
- “10파운드의 오염부담금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도 있겠지만, 모든 시민의 건강과 깨끗한 대기를 위해 이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

- 런던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

- 주요 내용

- 오염부담금은 하루에 10파운드(1만 4천 원)
- 런던시 혼잡통행료 적용지역과 같은 구역에서 월~금 오전 7시~오후 6시에 징수
- 적용 대상차량
 - 유럽 배출가스 기준 EURO 4 이하의 경유·휘발유 차량
 - EURO 3 이하의 3륜·4륜 오토바이
 - 오토바이, 응급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



[그림 2] 런던 T-charge 적용 구역

- ‘T-Charge’ 부과대상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서비스 제공
 - 런던시 홈페이지에서 새 차와 중고차 모두의 배출가스 수준과 ‘T-charge’ 적용 여부를 확인 가능

<https://www.london.gov.uk/what-we-do/transport/mayors-new-ps10-toxicity-charge-londons-most-polluting-c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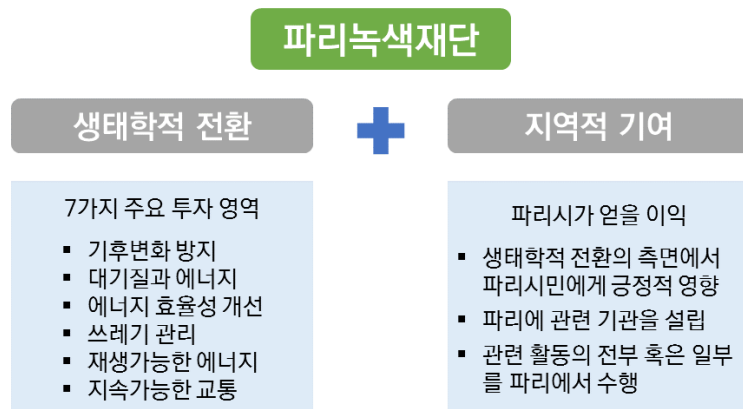
<https://tfl.gov.uk/modes/driving/emissions-surcharge/t-charge-costs-discounts-and-payments?intcmp=49135>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파리녹색재단 만들고 운영할 중소기업 공모

프랑스 파리市 / 환경·안전

- 파리기후협약의 실천에 앞장서는 프랑스 파리市는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문제는 시장·소비·교통·주거 등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생태학적 전환’(transition écologique)이 이루어져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파리녹색재단’(Paris Fonds Vert)을 운영할 중소기업을 공개적으로 모집
- 배경
 -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파리시
 - 파리시장 안 이달고(Anne Hidalgo)는 ‘파리기후협약’을 체결하는 등 파리를 생태·환경 문제 해결의 리더격 도시로 만들고자 함
 - 이달고 시장은 환경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생태학적 전환’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
 - 시정부는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위해 2016~2020년 30억 유로(4조 원)를 투입할 예정
 - 이달고 시장은 환경문제 해결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주장
 - 시장, 주거, 소비, 교통 등 생활의 전반적 영역을 포괄하는 ‘생태학적 전환’이 필요하며, 이것이 오늘날 새로운 일자리와 부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
 - ‘생태학적 전환’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파리녹색재단’ 설립의 근본적 배경



[그림 1] 파리녹색재단 운영 개요

- 주요 내용

- ‘파리녹색재단’ 개요
 - 법적·재정적 측면에서 ‘생태학적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 시정부는 2017년 초 관련 법을 제정해 재단의 운영을 능력 있는 사기업에 맡길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 최소 1억 5천 유로(2천억 원)를 ‘생태학적 전환’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
- 운영기업 선정기준
 - 생태학적인 기술·생산물·서비스에 관한 잠재적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희망
 - 가장 중요시하는 능력은 자금조성 능력과 생태학적 지식
 - 목표한 ‘생태학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의 자본을 투자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 운영기업은 아래와 같은 재단의 목표를 실행할 역량을 갖춰야 함

[표 1] 파리녹색재단의 주요 목표

파리녹색재단의 주요 목표
1)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건축물과 주거
2)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교통과 물류
3) 녹색 에너지
4) 대기질 개선
5) 쓰레기와 폐기물을 관리하고 재활용하는 혁신적 기술
6)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대기오염 방지

- 엄격한 운영기업 선정
 - 파리시가 엄정한 기준으로 선정한 운영기업을 프랑스 ‘금융시장감독원’(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이 다시 한번 평가한 다음 인가

<https://www.paris.fr/actualites/transition-ecologique-paris-lance-un-appel-a-manifestation-d-interet-5155>

<http://www.latribune.fr/entreprises-finance/banques-finance/la-ville-de-paris-se-dote-d-un-fonds-d-investissement-pour-la-transition-ecologique-744406.html>

<https://api-site-cdn.paris.fr/images/95896>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정보·기타

빅데이터시대 데이터 수집·활용능력 강화

프랑스 파리市 / 정보·기타

- 빅데이터를 도시 운영에 활용하는 ‘스마트시티 파리’(DataCity Paris) 프로젝트를 시행 중인 프랑스 파리市는 데이터 수집·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마련하고 교통, 소음, 대기오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

- 배경: ‘스마트시티 파리’ 프로젝트(※ 381호 참조)
 - 파리는 빅데이터를 도시 운영에 활용하기 좋은 인프라를 확보
 - ‘파리기후협약’에서 생태적·경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최신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 중요하다고 결론
 - 위와 같은 맥락에서, 기업이 아닌 시민의 이익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활용 방안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 제기

- 개요: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 인식과 전략 제시
 - 시정부는 데이터의 수집-조직-활용이라는 ‘스마트시티 파리’ 프로젝트의 3단계 중 수집이 가장 중요한 단계임을 인식하고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
 - 1) 실험: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장비를 시험하고 새로운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기업에는 실전 테스트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빅데이터 기술로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
 - 2) 투자: 10억 유로(1조 3천억 원)를 투자해 파리와 시민 간의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예정(예: 도시 차원의 자동화된 원격 난방 시스템)
 - 3) ‘스마트시티’만을 위한 인력 배치: 데이터 관련 총괄 행정책임자를 파리지 최고위 행정직 중 하나로 승격하고 인력을 배치
 - 4) 첨단 데이터과학 기업이나 연구소와 파트너십 체결
 - 5) 데이터 플랫폼 설치: 수집한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

- 데이터 수집·활용 사례
 - ‘나시옹 광장’(Place de Nation)의 실험
 - 파리시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자 교통의 요충지인 나시옹 광장에서 2015년 12월부터 1년간 50여 명의 데이터 수집요원이 실험을 진행
 - 첨단 장치를 활용해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소음, 대기오염 등에 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
 -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화질을 낮추고 데이터 수집 후 즉시 폐기
 - 수집된 정보는 광장에 설치된 전광판과 홈페이지(<https://opendata.paris.f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건물 에너지 사용량 분석
 - 12구 시청 건물, 탁아소와 체육관 한 곳씩, 1천여 곳의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물 소비량을 측정하고 온도 데이터를 수집
 - 입주민이 가장 많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간대와 소비량 등을 분석해 입주민의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면서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방안을 모색
 - 건물 이용자나 관리자에게 분석내용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권유
 - 공용 전기자동차 ‘오토리브’(Autolib) 30대에 대기오염 측정장치 ‘폴뤼트랙’(Pollutrack)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관련 데이터 수집(※ 272호 참조)
 -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과 시간대를 알아내 차량 이동을 통제할 목적
 - 쇼핑센터 밀집지역인 ‘이탈리 광장’(Place d’Italie) 30여 개 교차로에 유동인구 측정장치를 설치하고 유동인구의 증감에 따라 신호등을 조절
 - 장애인의 엘리베이터 이용을 돕는 실험
 - 엘리베이터 이용 빈도와 지리적 상관관계 등을 분석해 장애인에게 최적의 엘리베이터 활용 경로를 안내

<https://www.paris.fr/actualites/datacity-paris-comment-utiliser-les-donnees-pour-resoudre-les-enjeux-urbains-5236>

<https://www.paris.fr/services-et-infos-pratiques/innovation-et-recherche/ville-intelligente-et-durable/paris-renforce-sa-demarche-pour-capter-et-exploiter-la-donnee-3191>

<http://www.datacity.paris/>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